

커피 한 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산자들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장려금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연재순서]

- 1회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에 주목하다
- 2회 커피 한 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 3회 레드오션 커피산업과 지속가능성 / 우아한 티타임 뒤의 불편한 진실
- 4회 스페셜티 커피 분야에 공정무역 커피를 가져오다
- 5회 성평등에 기여하는 공정무역 커피/차
- 6회 대륙별 공정무역 커피/차 산지 비교





매일 몇 잔씩 마시는 커피를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적은 노력은 '공정무역'에서 출발한다. 이번 회에서는 공정무역의 기본 개념과 정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피 관련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제안한다.

국제공정무역기구 Fairtrade International

국제공정무역기구 (FI, www.fairtrade.net)는 독일 본(Bonn)에 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무역(Fairtrade)의 비전을 현실화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도덕적이며, 큰 규모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제기구 (32개국 사무실)

- 생산자 단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국가들로 구성 (73개 국가)
1,707개의 생산자 조합, 약 170만 명 참여
90% 이상이 소작농민
- 공정무역 규모 (2019)
3만 5천 여종 이상의 제품이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
전 세계: 약 13조 원
한국: 약 500억 원
- 공정무역 생산자에게 추가 장려금 지급: 약 2,000억 원 (학교, 병원, 위생, 수도 등 SOC 관련 지역사회에 투자)

공정무역이란?

'공정무역 인증 커피'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Fairtrade)'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하면 공정무역은 더욱 공정한 국제무역을 추구하는 무역 협력으로,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정당한 금액과 공정무역 프리미엄(장려금)을 지급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에 이바지한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어린이 노동 금지, 여성 노동력 차별 금지, EU 금지 농약 사용 불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금지를 통해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지원한다. 특히, 국제공정무역기구는 2015년 비영리기구 투명성 조사에서 48개 국제비영리기구 중 2위를 차지했고, 140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큰 규모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도덕적인 전 세계 최대 공정무역 기구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FI)의 본부는 독일 본(Bonn)에 위치하며, 전 세계 약 32개국에 국가사무소를 두고, 약 73개국의 1,707개 생산자 조합과 약 170만 명의 생산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각 대륙 별로는 생산자 네트워크를 두어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상품들은 두 단계의 인증을 거쳐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독립 외부 감사기관인 FLOCERT에서 공정무역 인증원료를 국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고, 모든 공정무역 인증자들의 공정무역 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한다. 두 번째 단계로 국제공정무역기구로부터 마크 부착자격인 라이선스를 부여받아야지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이처



- 공정무역 사무소가 있는 국가
- 공정무역 원료 생산 국가
- 공정무역 원료 생산과 사무소가 있는 국가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Fairtrade Korea

전화 : 02-725-0381 / 이메일 : info@fairtradekorea.org
홈페이지 : www.fairtradekorea.org / b2b.fairtradekorea.org
페이스북 : [fairtrade korea](https://www.facebook.com/fairtradekorea) / 인스타그램 : [@fairtradekorea](https://www.instagram.com/fairtradekorea)

럼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정무역 마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윤리적 인증 마크이다. 공정무역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생산자로부터 제품 포장 단계까지 거치는 모든 기업이 공정무역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전 세계 약 3만 5,000여 개, 국내에는 약 500여 개의 국제 공정무역기구 인증 상품이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2019년 기준 공정무역 관련 전 세계 매출은 13조 원, 한국 내 관련 기업 매출은 500억 원에 이른다. 국내 공정무역 관련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 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해 6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무역 커피는 처음으로 공정하게 거래된 식품이고, 공정무역 마크를 최초로 부착한 제품이다. 실제로 전체 공정무역 생산자 중 절반이 커피 산업에 종사한다. 커피 산업은 공정무역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개발도상국 커피 생산자들의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지원하는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최저가격'과 '공정무역 프리미엄(장려금)'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저 가격은 우리가 내년에 마실 커피를 보장한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들이 지속 가능한 생산비용을 부담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저가격(Minimum Price)을 보장한다. 세계 커피 시장은 커피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커피, 설탕, 카카오, 면화 등과 같이 빈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시장은 제조품 시장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말한다. 농산품 시장에서의 무한경쟁은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긴다. 농민이 돈을 벌고 싶어도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가격이 계속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더욱더 많이 생산하는 수밖에 없다.

2019년 초 커피 가격은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고, 전 세계 커피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커피 생산자들이 생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생산자들은 커피를 생산 비용 미만으로 판매해야 했다. 가격 변동성 큰 커피는 생산자의 삶을 어렵게 한다. 수확 직후 국제 가격을 미리 알 수 없음으

로, 그에 맞는 생산 계획도 세울 수 없다. 커피 생산은 기온, 강수량, 병충해에 취약하기에 해마다 생산량은 동일할 수 없고 세계 커피 공급을 브라질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약성은 배가된다.

커피 가격의 폭락으로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한 생산자들이 내년 에 커피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전 세계인에게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커피 산업에 종사하는 무역업체, 로스팅 업체, 소매업체, 카페 등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들 모두 결국엔 커피를 손에 쥌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소규모 로컬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 지속 가능한 생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커피 소비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공정무역 프리미엄이 바꾼 생산자들의 삶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들의 생산 품질 향상, 지역 사회 프로젝트 등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쓰이는 공정무역 프리미엄(장려금)을 지불한다. 공정무역 커피 농부들은 민주적인 토론과 투표를 통해 원하는 곳에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받은 프리미엄의 25%는 제품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공정무역 프리미엄으로 협동조합의 긴급자금을 조성한 경우도 있다.

이는 소규모 커피 생산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와 거래하는 기업에게 공급 안정성을 보장한다. 2018년 기준 7개 대표 제품의 생산자들은 약 2,282억 원의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받아 지역사회 발전에 사용했다. 그 중 커피 생산자에게는 약 1,094억 원의 프리미엄이 지급됐다. (240\$/1t)

공정무역 프리미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지난해 처음 공정무역 인증 커피를 도입한 엔제리너스에 공정무역 인증 커피를 제공한 생산자들이 보내온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의 아그로 빼꾸아리아 데 로스 알토스 데 치아파스(Agropecuaria de los Altos de Chiapas) 생산자 조합은 2019년 공정무역 프리미엄 사용 내역을 보면 커피 5,500kg 중량 측정 가능한 저울, 건조된 파치먼트를 옮길 손수레, 저장용 냉장고, 커피 크기 분류기 등이 있



2018 국제공정무역기구 활동 개요



맥스앤스펜서 카페 공정무역 인증 커피



1 엔제리너스 멕시코 공정무역 인증 원두. 2 네스프레소 마스터오리진 공정무역 인증 커피. 3 Agropecuaria de los Altos de Chiapas 농장의 생산자. 4 스타벅스코리아 공정무역 인증 이탈리아 로스트 원두. 5 CAFÉ WILLIAM SPARTIVENTO의 Fairtrade & Local 캠페인.

다. 공정무역 프리미엄으로 커피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들을 산 것이다. 커피 생산자들은 커피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고 다음 해에도 우리가 마실 커피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아그로페꾸아리아 데 로스 알토스 데 치아빠스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베르나르디오 로페즈(Bernardino López) 씨는 “공정무역 프리미엄으로 커피 품질 개선에 더 투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스페셜티 커피 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페즈 씨처럼 소규모 커피 생산자들이 주체적으로 커피 사업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실 커피를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무역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

마케팅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공정무역 인증 커피

커피 관련 마케팅 콘텐츠를 들여다보면 주로 커피의 원산지, 로스팅, 패키징 디자인, 맛에 대한 기술에 미사여구 한 스펠을 더한다. 그러나 이전 커피 마케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커피 기업들의 마케팅은 지속 가능성을 간과했다. 공정무역 인증 커피가 가진 스토리텔링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최저가 생두를 구매해 과거의 방식 그대로 진부한 마케팅과 PR을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소비자에게 외면받을지도 모른다. 공정무역 인증 커피빈을 사용해 그것이 가진 글로벌 환경적 기준, 사회적 기준, 경제적 기준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U 금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Non-GMO 커피, 어린이 노동이 금지된 농장에서 재배된 커피, 여성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 농장의 커피. 공정무역 인증 커피의 스토리텔링은 무궁무진하다.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정무역 프리미엄 자료

를 가지고 요즘 한국의 소비자들이 말하고 있는 가심비를 공략할 수도 있다. 공정무역 인증 커피는 저가부터 스페셜티, 마이크로닷까지 폭넓게 포진해있다. 공정무역 인증 원두를 도입해서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성 스토리텔링을 마케팅과 PR에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적 매출을 이끌 것이다.

이미 커피 산업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변화가 시작된 커피 산업에서 이 마케팅 포인트를 아는 기업만이 미래 커피 시장의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스타벅스(Starbucks), 막스 앤스펜서(Marks & Spencer)를 비롯한 선진국의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와 유통업체는 공정무역 커피 PB 상품을 도입하고, 완제품을 팔고 있다. 최근 네스프레소(Nespresso)도 마스터 오리진 컬렉션을 출시하며 7가지 중 2가지를 공정무역 인증 커피로 선보였다. 고품질 커피와 지속가능성 목표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커피 기업들이 앞다투어 공정무역 커피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업의 이윤과 동떨어진 윤리 경영은 없다.

공정무역과 기업의 마케팅 전략 및 미래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할 때다. 사람과 지구를 위한 소비. 바로 기업을 위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 *Coffee&Tea*



조소연

現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부장